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아침밥 먹고 빨래 개서 옷장에 정리하고 빨아 놓은 빨래를 거실에 잘 털어 널었다. 빨래를 널거나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착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보르헤스'의 시를 읽다가 시집을 배 위에 올려놓고 이불 속에 누웠다. 방바닥의 따사로운 온기가 몸으로 전이되어 왔다. 내 몸과 이불 속의 온도가 일치되는구나, 하면서 정신이 가물가물 스르르 잠이 들었다. 포근한 온기로 푹 잤다. 낮잠을 길게 자고 일어나니, 겨울이 겨울 같다. 몸이 환하게 개여가 반하였다. 밖에 나갔다. 하늘이 청명하였다. 정말 맑았다. 고개를 들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둘러보았다. 산 능선들이 선명하다. 눈부신 겨울 하늘이다. 오랜만에 봄 하늘 같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 원음방송 교무

모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 "너는 착하게 살아라"하고 떠난다고 한다. 보통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기를 최후의 한소리로 하기 마련인데, 적어도 종교인의 최후 일념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원불교 대중사제에서는 착 없는 그 자리를 보고 착 없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사무쳐서 갈 수 있도록 최후의 일념을 잘 챙기라고 하셨다. 만일 집착의 생애를 산다면 금생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다음 생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에게서 모두 블랙박스 같은 업 주머니가 하나씩 있어서 그 속에 선업을 짓거나 악을 지은 것을 담게 된다. 그런데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범부 중생은 착심을 따라 그 영혼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가령 누가 미우면 원수 갚아야지 하는 착심으로 그 집에 가서 태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 그 집에 가서 태어나고, 또 재산에 착심이 붙어 있으면 그 근처를 떠나지 못하게 된다. 착심이 있으면 그 착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기고



김효중 사랑실은 노래 봉사단장

올해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를 맞는 즐거움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더 크다. 지난해 발생한 12·3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필자 역시 가슴을 졸이며 연발연시를 보냈다. 그래도 새해가 되면 올 한해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필자에게는 3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의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일이다. 나눔과 봉사는 혜택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행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복지시설 등을 찾는 발길이 거의 끊겼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베풀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1993년 결성된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은 각 방송국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공무원, 회사원, 주부 등 90여명이 모여 만든 단체다. 경생원, 재매원, 재환원, 양로원, 교도소 등 소외된 계층의 복지시설 및 복지시설을 매월 한차례씩 방문하며 노래로 봉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546번의 공연을 진행했다. 성

새들의 시

아보아진다. 강길인데, 어찌지 깊은 숲속 길 같다. 물속에 잠긴 돌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한번도 말을 해 본 것 같지 않은 물속 돌들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다. 자갈들이 밟히는 길이 끝나고 흙길이 나타났다. 따뜻한 양지다. 흙 위에 낙엽들이 쌓여 폭신평신했다. 멧돼지들이 땅을 뒤집어 놓았다. 뒤집힌 땅이 마치 서툰 사람의 팽이질 솜씨 같다. 든든하게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막강한 나무들을 올려다보았다. 나무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도 저렇게 삶에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나무들은 비겁하지도 않고 다른 나무를 속이지 않을 것 같다. 따로 무엇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남을 욕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다. 누구를 저지분하게 이기거나 누구에게 비굴하게 지지 않을 것 같다. 불의를 모를 것 같은 반듯하고 당당한 나무들 곁에 서 있으면 내가 좋아된다. 오래된 나무들은 아무 데나 서 있어도 넘볼 수 없는 곱결한 인격을 갖춘 상상 속의 어떤 인물 같다. 내가 사는 마을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150년도 더 되었다고 한다. 우리 마을에 사셨던 서촌 할아버지가 심었다고 한다. 서촌 할아버지는 평생 홀로 사셔서 자손이 없다. 이 느티나무가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느티나무는 천년을 넘게 산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는 살아 숨 쉬는 나의 책이다. 나는 이 나무를 78년째 바라보는 중이고, 77년 동안 이 나무 아래

를 지나다녔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이 나무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지금도 봄이 오면 까치가 집을 수리하고, 새잎이 피고 꾀꼬리가 날아와 운다. 여름밤이면 둥근 달이 나무 위를 지나간다. 가을이면 단풍 물든 느티나무 잎이 강물에 떨어지고 겨울이면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쌓여 놀라운 마을 풍경을 그려준다. 이 느티나무는 해마다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는 나의 나라다. 날이면 날마다 지지치 않고 새로운 시를 써주는 놀라운 '시 나무'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게 인문이다. 보고 배우고 익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 사람을 귀하게 가꾸며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게 책이라면 내게 이만한 책이 없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씻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서 보여 주는 이 책은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책도 안 읽는다. 지금도 강 건너 큰 소나무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어느 날 나는 이 나무가 불러주는 시한 편을 받아 적었다. '나무는 정면이 없다/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다/ 나무는 언제 보아도/ 완성되어 있고 / 언제 보아도 다르다/ 나무는 경계가 없어서 /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 달이 뜨면 달이 뜨는 나무가 되고/ 새가 날아 와 앉으면/ 새가 앉은 나무가 된다/ 나무는/ 바람의, 눈송이들의, / 새들의/詩다' -출시 '새들의 시' 전문.

한결같이 변함없는 여여(如如)한 마음을 챙기자

사람이 되든 짐승이 되든 또는 여자나 남자가 되든, 모든 것이 집착에 의한 결정이다. 이것을 유사학에서는 총보업(總報業)이라고 한다. 한 형태로 태어났어도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것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사용한 것이 우리의 업보 주머니에 들어 있다가 그 지은 바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전에 몸이 서로 붙은 삼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성질이 급한데 한 명은 내성적이었다고 한다. 착심으로 인해서 둘이 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전생에 지은 업보가 달라서 그 별보업(別報業)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별보업은 처음에 큰 집착으로 사람이나 동물 또는 남자와 여자가 결정된 후에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에도 지었던 업보가 점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선업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 정진하여 도심을 잘 챙기고 무심한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최후 거래를 해야 한다. '휴휴암좌선문'에서는 '치연작용(熾然作用) 정제여여(正體如如)' 즉 천만경계에 치연히 작용하나 정제여여한 그 마음을 꼭 챙겨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을 챙겨서 정을 붙이더라도 지나면 한마음을 딱 거두어서 여여한 그 마음을 챙길 수 있어야 도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칫 이 사람 저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며칠 동안 잔상이 남아서 그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마음에 장갑을 착용해서 예쁘고 미운 것은 그때 잠시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일 끝나면 장갑을 벗어 내려놓아야 한다. 이은상 시, '그 집 앞'의 노랫말에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모르게 발이 머물고 오하려 는에 뿔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마치 중생이 죽어서 다음 생을 갈 때 집착으로 가는 것과 가기는 같지만 못 잊어서 다시 되돌아보고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을 찾아갔다가 이미 부모 될 분들이 단산되어서 그 집의 아이로 태어날 수 없는데도 거기에 집착하여 49일이 지나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 몸이 아닌 짐승의 몸을 받게 될 수 있다. 비록 이생에 내가 좋은 선업을 많이 지었어도 최후 일념에 그 무심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사계를 하는 데는 텅 빈 자성에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처(觸處) 불유정(不溜靜)하라.' 사람을 만나서 예쁘다 밋다는 것이 속이고 또 경계를 만나는 것을 축처라고 말한다. 일할 때는 정들어야 일도 되고 사업도 성공하는데 일을 마치면 한마음을 바로 거두어서 텅 빈 마음을 수렴하여 든공한 무념처가 되도록 많이 연마해야 한다. 그래서 삼세제를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귀신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그 마음을 끊임없이 챙기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비밀히 전하는 부처님들의 일이다. 대중사제께서는 공들이고 정들어서 원불교 교단을 만들었지만 죽을 때는 썩은 새끼줄 끊듯이 그리고 현 쥘신 버리듯이 간다고 했다. 시작은 끝으로 가는 과정이라 했듯이 올 한해도 정에 머물지 않고 든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나눔

금, 물품, 공연행사 지원 등으로 9억 8000여만원을 후원했다. 공공 기관 등의 지원 없이 오직 필자 개인과 나를 믿고 오랫동안 마음을 함께 해온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치러왔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힘들게 행사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활동을 멈추지는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공연을 멈추지 않았고 공연을 하지 못할 때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필자가 현재에 있을 때는 아버지날, 추석, 설날, 연말 등 1년이면 4차례씩 12곳의 시설에서 꼬박꼬박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경기도 너무 나빠지면서 이후 아버지날과 추석 두 차례 공연을 진행했고 아쉽게도 올해는 우선 5월 8일 아버지날 행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봉사단이 찾은 곳은 1993년 9월 15일 첫번째 공연을 열었던 귀일원이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나 추석 공연을 갔을 때 귀일원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흥겨운 트로트 공연과 난타 공연에 함께 춤을 추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또 직접 준비해간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던 모습도 마음에 남아 있다. 필자는 후원을 해준 분들을 꼭 행사 현장으로 초대한다. 그냥 성금을 보내거나 물품을 후원하는 대신 시설을 찾아가 그곳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내 방문한 후

원자들은 함께 식사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박수도 치면서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간다. 무엇보다 가장 고마운 이들은 거마비만 받고 무대에서 주는 단원들로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자세도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 연말에는 귀일원에서 감사패와 소박한 선물을 받았다. 오랜 인연으로 늘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스럽기도 했지만 마음이 뿌듯했다. 필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덕담도 마음에 남았다. 사람들은 필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배우는 게 많다. 공연 준비할 때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해도 피곤해 보이지 않더라는 아내의 말처럼 봉사를 하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다. 필자에게는 수십년째 생각해 온 오랜 꿈이 있다. 낮에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식사 후에는 무료로 공연을 진행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 같이 사회복지대학원에 다니며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여건은 만만치 않다. 특히 요즘처럼 모두 살기 힘든 시기에는 함께 할 후원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올해 아버지날에도 귀일원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 드리고 또 지난해 추석 공연 때 약속했던 여려도 꼭 설치해드리고 싶다. 올해는 어려운 이웃들과 작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란다.

社說

불황 속 빛난 출향민 광주·전남 고향사랑기부

수년째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출향민들의 광주·전남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이 주어지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열악한 지방의 재정 강화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3배 넘게 급상승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1억 12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321% 늘어 전국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시는 애초 14개에 불과했던 답례품을 맛집·관광·체험 상품 등 62개로 대폭 늘린 것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2023년 143억원으로 모금액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187억원을 모금해 2년 연속 기부금 모금 1위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무안군이 2023년 모금액의 3배에 달하는 15억원을 모금했다. 이는 제주항공 참사 발생 직후, 단 이틀간의 모금액이 11억원으로 출향민사와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30% 이상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남다른 성공에는 기부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인 답례품의 다양화와 차별화된 현장 이벤트 등을 마련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향화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향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출향민들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향을 잊지 않고 지원하고 지지해 준 출향민들의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국힘, 이제尹 호위 그만두고 내란특검 합의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자 '(윤 대통령)이 유혈 충돌을 막으려는 큰 결단'을 했다고 추켜 세우는 한편 '불법 영장집행은 범죄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중수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비판이나 충언은 하지 않은 채 오직 줄서기만을, 그것도 앞다뒀 줄을 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의 체포에 앞서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30여명은 이날 새벽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를 방문해 20·30분 가량 윤 대통령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집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상황은 풍전등화이다. 국민의힘은 눈 앞의 민생은 외면한 채, 언제까지 법적 심판절차에 들어간 윤석열 지키기를 강행할 것인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비상계엄 사태 지지로 오판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역대 어느 정당이 비견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는 검사와 판사 등 법륜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제 극우 지지층의 논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로 돌아와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 이제 비상계엄 사태의 신속한 수사와 타책 정국 수습을 위한 절차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처리를 먼저 제안하면 어떨까. 여야가 협치를 이뤄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이 나오길 희망한다.

無等鼓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지난 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었다. 유난하고 요란했던 선거였다. '사법 리스크'에도 이기흥 현 회장이 3선에 도전하면서 연일 논란이 벌어졌다. 또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혼돈의 선거가 됐다. 이번이 발생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 협회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체육 대통령' 이기흥 후보를 꺾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유승민 당선자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걸으며 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신동' 유승민이 경중뛰어올라 '레전드' 김택수 코치 품에 안기던 장면은 짜릿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탁구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최강으로 꼽히던 중국의 양하오를 상대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날리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유승민. 그는 만리장성을 넘고 16년 만에 한국 탁구 금메달 주인공이 됐고, 여전히 한국 탁구 마지막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남아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유승민은 화제의 인물이었다. 그는 울림

픽 기간 진행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 선거에 도전했다. 한국에서는 탁구하던 유승민을 떠올리는 이가 많지만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인지도가 떨어졌던 만큼 그의 당선을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또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났다. 하루 25km를 걸으면서 이름과 포부를 알린 유승민은 총 23명의 후보 중 득표 2위로 IOC 선수 위원이 됐다. 이후 유승민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장, 2018 평창기법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2019년에는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로 진행된 대한탁구협회 회장 보궐 선거에서 37세의 회장님이 됐다. 유승민은 2020년에는 대한탁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유승민의 다음 목표지는 대한체육회장이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됐지만, 그는 다시 또 걸었다. 말바닥에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권위와 관행으로 세워진 이기흥 벽을 넘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변화를 향한 묵묵한 걸음이 다윗의 승리를 만들었다. /김여울 체육부차장 wool@

다윗과 골리앗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